



‘산수’

추사-소치-미산 남종화의 맥 잇고 꽃피운 작품 120점

가계·생애·학문·예술세계도 조명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이라 불렸다. 어느 식당에만 들어가도 산수와 한 폭이 걸려 있는 등 예술을 사랑하는 지역 정서를 볼 수 있다. 허백련, 오지호, 임방울 등 많은 대가들도 예향

광주의 오늘을 있게 한 존재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24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특별전 ‘전통문화 최후의 거장 의재 허백련’을 개최한다.

의재 허백련(1891~1977)은 근대 이후 대표적인 남종화가이다. 추사 김정희(1786~1856), 소치 허련(1808~1893), 미산 허형(1862~1938)으로 이어지는 남종화의 맥을 계승하고 최후의 꽃을 피웠다.

정식 개관에 앞서 23일 오전 언론 대상 전시설명회에서 허백련의 작품을 먼저 만나봤다. 이번 전시에는 허 화백의 작품 120점, 제자들의 작품 30여점이 출품됐다. 4부에 걸쳐 허 화백의 일생과 작품 세계, 그의 맥을 잇는 제자들을 조명하고 있다.

제1부 ‘가계와 생애’에서는 허백련의 가계와 지역적 배경 그리고 그가 어떻게 대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진도 출신 허백련은 소치 허련의 방계 후손이다. 전시된 가계도를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도록도 전시됐다. 허 화백은 당시 2등(1등은 없었음)을 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그가 출품했던 작품은 국내에는 찾을 수가 없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현재 상품화된 무등산춘설녹차와 관련해 그가 썼던 다구(茶具) 등도 볼 수 있다.

제2부 ‘시승과 교유’에서는 그의 학문과 서화 수련의 배경, 교육관계 등을 조명하고 있다. 허백련은 진도에 유배 온 무정 정만조(1858~1936)로부터 한학과 시문·글씨를 배웠으며 미산 허형에게서 그림을 배웠다. 전시된 정만조의 시와 허형의 그림을 통해 허 화백의 작품세계가 형성된 배경을 알 수 있다. 또 호남 남종화의 기원인 추사 김정희가 쓴 ‘공산무인 수류화개(空山無人 水流花開)’ 서화 작품도 선보인다.

제3부 ‘예술세계’에서는 그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두 차례의 금강산 여행을 통해 1940년대 그려진 ‘금강산도’ 병풍은 실경 산수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허백련의 예술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산수’(1953)다. 명나라 말기 서화가인 동기창의 ‘남종화론’을 써놓은 이 작품은 그림 뿐 아니라 시 등 인문학적 소양을 중요시 하는 그의 정신을 볼 수 있다.



‘일출이적’

또한 ‘춘설한심화첩’은 말년의 그가 평생 동안 즐겨 그린 소재를 한 화첩에 집대성한 의미 있는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허 화백은 산수와 뿐 아니라 사군자나 화조·영모화도 즐겨 그렸다. ‘사계화조’ 8폭병풍이나 ‘이조명춘’, ‘위진팔황’과 같은 다양한 상징성과 운치있고 담담한 품격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사계화조’에서는 세한삼우(歲寒三友)를 남도식으로 변형한 세한이우(歲寒三友, 대나무·동백)를 그려 지역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제4부 ‘의재 허백련의 제자들’에서는 함께 뜻을 같이하여 만든 연진회의 화우들과 제자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허백련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소산 정규원, 준포 허규 등의 전통적인 산수화와, 허백련의 동생 허행면의 ‘채광’, 소수 김정현의 ‘유담 청람’과 같은 실경작품이 선보인다. 또한 일제시대 이후 광주에 자리잡은 설촌현 시기의 제자들은 남종화의 정신과 기법을 바탕으로 전통에 얽매지 않고 현대화한 개성적인 작품을 보여준다. 문의 062-570-70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추사 김정희 작

‘공산무인수류화개’

의재 허백련展



오늘~2016.2.21
국립광주박물관

‘위진팔황’



백낙청 교수 창비 떠난다

1966년 창간 이후 살아있는 역사… 내년 50주년에 퇴임

백낙청(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이 50년간 이끌었던 출판사 창비를 떠난다.

창비의 편집인인 백 교수는 사실상 창비의 대표 인물로 불린다. 창비는 오는 25일 열리는 통합시상식에서 백 교수가 폐회 인사를 통해 편집인 퇴임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창비 관계자는 “내년 창비 50주년을 맞아 오래전부터 백 편집인의 퇴임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창비는 내년 초 50주년 맞아 백 교수의 뒤를 잇는 새로운 편집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 교수의 주도로 1966년 1월 개간 문예지 ‘창작과 비평’이 창간되면서 창비의 역사는 시작된다. 1974년부터 단행본 출판 시대에 들어간 창비는 이후 문학과 인물·교양서적은 물론 청소년·아동문학 분야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출판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백 교수는 지난 8월 표절로 논란을 일으킨 소설가 신경숙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론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는 “신경숙 단편의 문제된 대목이 표절 혐의를 받을 만한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이것이 의도적인 베껴쓰기, 곧 작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단정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창비는 문학동네, 문학과지성사와 함께 ‘3대 문화권력’이라고 불리며 백낙청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노창수 시인 시집 ‘붉은 서재에서’ 펴내

광주일보문학회장을 역임했던 노창수 시인의 신작 시집 ‘붉은 서재에서’(한국문연)가 나왔다.

2014년 시조시집 ‘조반권별’ 발간 이후 1년 만에 펴낸 이번 시집에는 다채롭고 새로운 감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모두 5부로 나뉜 작품집에는 ‘안약’, ‘감람실매기’, ‘잡도둑’, ‘어떤 유예’ 등 다양한 수사법으로 변주한 시들이 담겨 있다. 또한 표제작 ‘붉은 서재에서’를 비롯해 일상의 순간을 유머러스한 비유로 그려낸 작품들이 등장한다.

이재훈 평론가는 “노창수는 이번 시집을 통해 새로운 감각적 경험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재배치되는가를 보여주었다”며 “머뭇거림의 어조, 감각



적인 의성이 사용, 풍자 등의 다양한 수사법이 제시되었다”고 평한다.

한편 함평출신 노 시인은 1979년 광주일보(옛 전

남일보)로 신문문예로 등단했으며 광주문학회, 무등시조문학 등을 수상했다. 현재 광주전남시조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거울 기억제’, ‘선따라 줄긋기’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현대문학이론학회, 27일 ‘감성’ 조명 학술대회

한국문학의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한 ‘감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전국 학술 행사가 열린다.

현대문학이론학회(회장 이만란 전남대교수·사진)는 27일(오전 9시 30분)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학술대회는 ‘한국문학의 새로운 코드 : 감성, 윤리, 치유’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한다. 정명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강연회 원광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공감과 성찰로서의 문학적 상상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기획 주제발표에서는 신형철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우리시대 윤리학적 비평의 성과와 과제-윤리학적 방법과 정치학적 방법의 생산적 공존을 위하여’를 발표하고 정은경 원광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기획 주제발표2에서는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가 ‘신자유주의 시대 텔레비전 드라마의 치유와 기망 고찰-언론과 범주 소재 미니시리즈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최상민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 혼
추천회원
재 혼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화니은행 B/D 5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신동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시술후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시술전

M.H.타사
130만원

시술후

신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백미리 내무행정 500m 대산프리모가발